



즉시 배포용: 2023년 4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중대형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 첨단화 노력의 주요 성과 발표

주지사의 2023 시정연설 내용에 따라 전기차 개발의 문제점 해결 지시

뉴욕주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 퍼센트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 감축을 위한 노력

지구 주간(Earth Week)을 맞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가 중대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설계와 관련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시딩은 운송부문 전기화를 위해 필요한 유틸리티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또한 이번 이니셔티브는 소외 지역사회의 중대형 충전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 전역에서 더욱 많은 전기차가 도입되어 유해한 차량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PSC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뉴욕 주민과 기업의 전기차 전환을 더욱 쉽게 만들어 전국을 선도하는 우리의 기후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Hochul 주지사의 2023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내용에 따라 중대형 차량의 충전소 설치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총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운송 부문 전기화를 향한 뉴욕주의 유틸리티 프로그램 투자를 기반으로, Hochul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에 뉴욕의 중대형 차량 충전 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파악해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차량으로 인한 오염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공정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공중 보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브롱크스 헛츠 포인트를 매일 15,000대의 디젤 차량이 지나갑니다. 프로시딩의 일환으로 DPS는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인프라 설계를 통해 주요 대상 지역, 특히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에 포함되지 않은 소외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도록 개정을 고려 중입니다.

Rory M. Christian 공공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욱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PSC는 뉴욕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 전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PSC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의 초점은 세단, 픽업트럭, SUV 등 일반 승용차 EV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기후법)에 명시된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전일적인 접근법을 취하여, PSC는 뉴욕주 중대형 EV 부문의 전기화 수요에 대응하도록 이번 프로시딩을 추진합니다."

PSC의 결정에 따라 PSC의 집행 기구인 DPS는 중대형 프로그램의 시행 및 적극적인 설계 절차 진행을 위해 올해 말 적어도 하나의 백서를 작성할 것이며, 해당 내용에 따라 PSC가 행동에 나서기 전 일반에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합니다. DPS는 다수의 기술 컨퍼런스 향후 6개월 동안 실시하여 백서 발행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해당 절차의 정확함 범위는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설정될 것이며, EV 인프라 투자는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에 포함되어 트럭과 버스로 인해 불공정한 오염 부담을 받아온 곳 등 소외 지역사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적극적 설계 절차에서는 망 인프라가 뉴욕주 전역에서 늘어나는 EV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오늘 PSC의 결정은 뉴욕의 운송 부문 전기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및 혁신 디자인에 대한 위원회의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7억 100만 달러 규모의 EV Make-Ready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EV 충전이 가능하도록 망 인프라와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갖춘 부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소외 지역사회에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2억 6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부서는 현재 프로그램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1일 백서를 발행하여 프로그램의 개선과 확대를 위한 다수의 제안안을 공개했습니다.

준비 프로그램이 EV 충전 인프라의 비용 일부를 상쇄해주었지만, 위원회는 또한 충전 비용 및 이익율을 조정하여 주거 및 상업 전기차 충전소의 유틸리티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참가자에게 인센티브 또는 요금 크레딧을 제공하므로 망 전환의 유인이 됩니다. 주거 지역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EV Phase-In Rate는 상업용 EV 소비자에게 전통적인 수요 기반 요금의 대안이 됩니다. EV Phase-In Rate는 사용이 많지 않을 때 시점에 따른 요율을 채택하고 사용이 늘어나면 수요 요금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수요 기반 요금 책정이 EV 충전소에 주는 영향을 완화합니다. 유틸리티 기업은 7월 EV Phase-In 요율에 대한 태리프를 제출해야 하며, EV Phase-In 요율이 도입되기 전까지 앞서 수요 기반 요금을 50% 줄이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EV Phase-In 요율 적용을 통해 해당 시점의

가격을 책정하는 가솔린에 비해 30%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주의 기후 계획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주의 기후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부문에 걸쳐 친환경 경제를 계속 강화하며 청정 에너지 투자 혜택의 최소 35%(40% 목표)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생성 70% 등 2040년까지 무배출 전기 부문의 필수 목표에 도달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주요 성과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20개에 대한 35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뉴욕 그린뱅크(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8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투자를 통해 2021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16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뉴욕은 또한 2035년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트럭과 승객용 차량을 무배출 차량으로 제한하는 등 무배출 차량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등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limate Smart Communities) 약 400곳, 인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약 100곳,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Clean Energy Communities) 약 500곳, 뉴욕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대기 질 관리 이니셔티브 참여 지역사회 10곳 등 대기 오염 문제에 개입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뉴욕주 기후 행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